

격식변화 측면에서의 금기 비속어 번역의 특징 연구: 영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을 중심으로

한 미 선
(이화여대)

1. 서론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속어와 같은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차별화, 혹은 간결하고 강한 어휘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려는 본능적 욕구 때문이다. 결국, 거친 언어의 사용은 의도적이거나 본능적 자기표현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금기 비속어는 대표적인 거친 언어로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사용하는 품격이 낮은 언어라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생활의 특정한 상황에서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¹⁾, 최근

1)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2011년 3월 29일, 2011년 4월 12일자 기사 참조)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한국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도 강도 높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장인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는 비속어가 현실 세계의 축소판인 소설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개성을 부각시키기에 적합한 언어 재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맨틱 영화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농담은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가 되기도 하고, 추리 소설과 같은 문학 장르에서는 폭력적인 언어 사용이 특정 작가의 문체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소설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비속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재료의 차원을 넘어 메타 언어적 기능을 수행한다. 번역의 궁극적 목적은 최대한 원문과 유사한 효과를 재생산하여 수용자에게 원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금기 비속어는 해당 어휘를 통해 원문이 의도했던 효과를 번역문에서 충실하게 재현해야 하는 어휘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사실 인식에 근거하여 거칠고 격이 낮은 언어를 대표하는 비어와 속어에 금기어의 속성이 첨가된 ‘금기 비속어’의 영한 번역양상을 소설과 영화 자막을 대상으로 어휘 격식 변화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와 영어의 격식

인간의 언어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화되거나 글로 표현된다. 흔히, 고유한 방식의 말이나 표현을 문체(style)²⁾라고 하며, 문체는 격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Heylighen & Dewaele 1999; Newmark 1988; Savova 2005). 격식(格式, formality)은 주위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뜻하는 ‘격(格)’과 일정한 전례, 표준 또는 규정을 의미하는 ‘식(式)’의 합성어³⁾로, 특정 상황에서 기대되는 일정한 절차나 형식을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는 구어의 특정 표현 방식을 화체(speech style), 문어의 특정 표현 방식을 문체라고 지칭하나 본 논문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담화문 모두를 ‘문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부르하고자 한다.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 또는 ‘표준’ 등의 표현이 갖는 한계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언어의 격식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어져 헤이라이헨(Heylighen 1999: 2)은 “누구나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직관은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격식’을 종합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트루질(Trudgill 1983: 197) 역시 “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구어체에 비해 문어체의 격식이 높다’(Gambier 1994; Kovacic 1996; 노대규 1996; 김혜영 외 2010), ‘격식의 정도가 문체에 영향을 미친다(Savova 2005: 898)’ 또는 ‘문체 격식과 감정적 분위기(emotional tone)가 관련이 있다(Newmark 1988: 15)’ 등의 학자들의 주장에서 보듯이, 격식은 상대적 위계를 갖고 있으며, 격식과 문체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에도 이와 같은 격식이 존재하지만, 영어는 문체 차원에서 격식을 논하고, 한국어는 대우법의 관점에서 격식을 논한다는 점에서 각 언어의 고유의 특성상 특정 담화문의 격식을 실현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의 문체 격식과 관련하여 주스(Joos 1965: 11-32)와 스트레븐스(Strevens 1966: 89)⁴⁾ 등은 동결체(frozen), 격식체(formal), 상담체(consultative), 평상체(casual), 친밀체(intimate) 등 문체 격식을 총 5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뉴마크(1988: 14)⁵⁾는 주스와 스트레븐스에서 제시한 5단계 문체 격식을 확장하여

3) 네이버 국어사전

4) 주스(1965)에서와 마찬가지로 5단계 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비어(vulgarity)의 처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비어는 품위 없는 발화로 욕설, 비문법적인 담화, 속된 몸짓이나 소음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용어이다.

5) 공문서체: *The consumption of any nutriments whatsoever is categorically prohibited in this establishment.*

공식어체: *The consumption of nutriments is prohibited.*

문어체: You are requested not to *consume food* in this establishment.

중립어체: *Eating* is not allowed here.

구어체: *Please*, don't *eat* here.

일상어체: You can't *feed your face* here.

속어체: *Lay off the nosh.*

금지어체: *Lay off the fucking nosh.*(Newmark 1988, 14 참조)

총 8단계 격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문체 격식과 감정적 분위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국어 체계 내에서 담화 격식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평균의 한국인들은 “화자는 타인에 대해서는 높여서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 자신은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의식이다(김태엽 2007: 14).”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인의 언어 예절이 한국어에 반영된 문법 범주가 대우법으로, 이제까지 격식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 대우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우법⁶⁾이란 한국어의 특징적인 문법 현상이며 타인을 예우하는 보편적인 언어예절, 즉 한국어의 언어규범이다. 한국어의 대우법은 대우하는 대상에 따라 청자대우법과 자기대우법으로 나누어지지만, 주로 청자대우법을 중심으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태엽 2007; 한길 2002; 이정복 2008)는 사실은 청자를 예우하는 한국어의 규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국어의 대우법은 상황에 따라 격식을 선택하게 되며, 선택된 격식에 따라 담화문의 문체가 달라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체계이므로 격식을 분류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영어와 한국어 모두 상황맥락에 따라 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그 결과 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영어의 문체 격식과 한국어 대우법은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영어와 한국어 모두 문법요소와 어휘요소에 따라 문체 격식이나 대우법의 정도가 달라진다. 둘째, 장소, 시간, 청자와 화자의 관계 등과 같은 상황맥락적 요인에 따라 격식(화계)의 정도가 결정된다(Cheshire & Bell 2003; 유송영 1993, 1994; 최석재 2007; 이정복 2008). 셋째, 영어와 한국어 모두 언어 예절로서 청자를 공손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격식이 달라진다.

이처럼 영어의 문체 격식이나 한국어의 대우법은 문법요소나 어휘요소 또

6) 기존 연구에서 경어법, 높임법, 대우법이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고 있으나 점차 대우법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대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대우법은 청자대우법과 자기대우법으로 나뉜다. 타인대우법은 문장의 주체인지, 문장의 객체인지, 문장의 청자인지에 따라 그 하위 범주를 주체대우법, 객체대우법, 청자대우법으로 분류한다. 한편, 자기대우법은 대우할 대상이 화자 자신이므로 한 개의 하위 범주, 화자대우법으로 나뉜다(김태엽 200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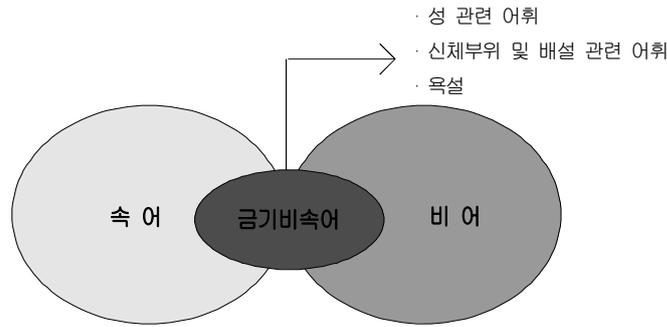
는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문체 격식이나 대우의 정도 및 적용이 달라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어의 대우법과 영어의 공손성 전략은 언어 예절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어의 대우법은 청자에 대해 무조건 격식이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영어의 대우법은 소극적 공손과 적극적 공손으로 나누어져 있어 격식이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청자를 존중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이상 살펴본 한국어의 대우법과 영어의 문체 격식의 공통점 및 적용상의 차이점은 소설과 영화의 영한 번역 시 금기 비속어의 번역어 선택과 나아가서 담화문의 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며 각기 다른 문체 격식의 담화문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격식 정도에 따른 담화문의 문체적 특징을 번역문에서 충실하게 보존하지 않을 경우, 인물 고유의 성격, 인물 간 상호관계, 전체 줄거리나 흐름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ST7의 문체 격식을 번역문에 보존하는 것은 소설 및 자막의 영한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2.2 금기 비속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금기 비속어란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말’인 금기어의 속성을 갖고 있는 비어나 속어를 의미한다. 흔히 금기어는 종교, 인종, 민감한 신체부위, 성행위, 배설물, 죽음, 저주, 욕설 등과 같은 금기 영역에서 파생된다. 그러나 출발어 문화인 영어 사용권과 달리, 인종이나 종교와 관련된 금기는 도착어 문화인 한국에서는 관련성이 낮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性), 신체부위 및 배설물과 관련된 비속어 및 욕설 등 가장 보편적인 세 개 금기 영역의 어휘만을 ‘금기 비속어’로 지칭하고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원문, 출발텍스트, ST 등을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성, 신체부위 및 배설물, 욕설 세 개 금기 영역으로만 범위를 국한한 이유는 이 세 영역의 어휘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금기 영역으로 간주되며, ST와 TT를 비교·분석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동일한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개 영역의 어휘는 금기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자로 하여금 어휘를 선택할 때 자가검열을 통해서 적절한 어휘 형태를 모색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Allan & Burridge 2007). 또한 사전에 비어나 속어로 정의된 어휘는 영어 및 한국어 언어 시스템 내에서 격이 가장 낮은 어휘로 담화문 전체의 문체 격식을 낮추는 속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금기 비속어는 금기의 속성으로 인해 광의의 비어나 속어에 비해 환기의 강도가 더 높다.

번역의 궁극적 목표는 원문과 최대한 유사한 효과를 도출하여 문화의 독자가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Nida 1964; Newmark 1981). 그러므로 금기 비속어를 격식이 높은 TT 어휘로 번역하거나 생략한다면 원문과 다른 분위기가 창출될 것이므로 충실성의 측면에서 번역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금기 비속어가 생산하는 문체 효과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문과 번역문의 어휘 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방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 시스템 내에서 비어나 속어가 담화 속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어사전⁸⁾과 영영사전⁹⁾의 기술을 통해 두 언어 내에서

비어와 속어가 각각 어떤 표현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어와 한국어 시스템 내에서 비어와 속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의와 기능 측면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었다.

<표1> 영어와 한국어의 비어와 속어

	공 통 점	차 이 점
속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머 효과 및 친근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 - 신선한 표현에 대한 욕구 - 구어체에 많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사전의 경우, 성적인 표현 대부분을 속어로 분류
비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영사전의 경우, 성과 배설 관련 어휘를 비어로 분류 - 국어사전의 경우, 금기어에 대한 세분화된 구분 없음

영어와 한국어 시스템 내에서 비어와 속어는 모두 격이 낮은 말이며,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는 어휘로서 두 어휘 모두 감정적 가치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비어가 속어에 비해 부정적 감정의 가치를 좀더 강하게 표출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위의 <표1>이 보여주듯이, 영영사전에서는 성이나 배설 관련 어휘를 따로 금기어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해, 국어사전은 금기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영어나 한국어 담화문 모두에서 비어나 속어는 표현하고자 하는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층의 의미 또는 표현의도가 부가적으로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8) 국어사전(4종):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어대사전(1994), 금성판 국어대사전(1997), 우리말 큰사전(1992)을 참조하였다.
 9) 영영사전(4종): 뉴 옥스퍼드 아메리칸 사전(2005), 웹스터 뉴 월드 사전(1989), 롱맨 온라인 영영사전, 옥스퍼드 온라인 영영사전 등을 참조하였다.

2.3 금기 비속어의 번역문제

본고에서 금기 비속어는 금기성이 강한 비속어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금기어는 환기의 기능이 가장 강한 어휘로 알려져 있다(Jay 1992; Dewaele 2004; Janschewitz 2008). 따라서 금기어의 속성과 부정적 감정의 가치가 담겨 있는 비속어가 결합된 금기 비속어는 환기의 강도가 강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기 비속어의 번역은 해당 어휘가 담고 있는 환기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금기 비속어 번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첫째, L1의 금기 비속어가 환기하는 감정의 강도는 L2의 금기 비속어에 비해 좀더 강하므로(Jay 1992; Harris, Aycicegi, & Gleason 2003; Dewaele 2004; Janschewitz 2008; Jay & Janschewitz 2008), 번역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금기 비속어의 경우, 개인이나 문화권에 따라 금기 비속어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Baker 1994; Jay & Janschewitz 2008; Dewaele 2004; Javier 1989; Harris et al. 2003), 이로 인해 번역자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원문에 의도된 효과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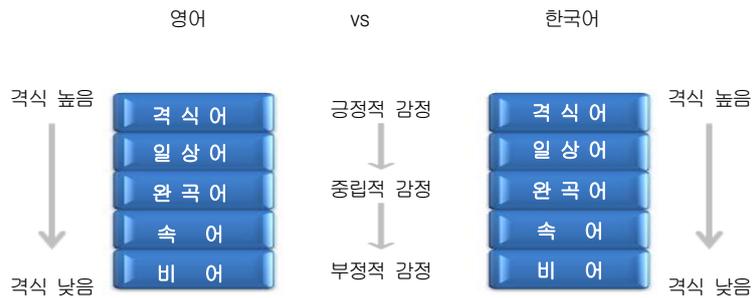
3.1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금기 비속어가 원문과 번역문에서 동일한 감정의 강도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5단계 위계로 이루어진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 격식 모델¹⁰⁾을 수립하였다(한미선 2011; 2012). 이를 위하여, 영어의 어휘 격식은 뉴마크(1988)와 클레어(1995)의 제안에 기반한 한편, 한국어의 어휘 격식은 김태엽(2007)의 연구와 김동연(2007)의 어휘 분류에 기초하여 다음 <그림1>과 같이 각각 5단계 어휘 격식 모

10) 어휘 격식 모델 수립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번역학 연구 제 12권 3호(285-288) 참조한다.

텔을 수립하였다.

〈그림1〉 어휘 격식 분석 모델



상기 어휘 격식 모델을 기반으로 소설과 자막에 등장하는 금기 비속어의 격식과 더불어 감정의 강도가 번역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비교·분석했다. 이때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원문과 번역문 간 금기 비속어의 어휘 격식 변화를 고찰하였다.

- 첫째,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상승”으로 표기)
- 둘째, 동일한 격식의 어휘로 번역(“유지”로 표기)
- 셋째, 격식이 더 낮은 어휘로 번역(“하락”으로 표기)

금기어의 속성을 갖는 원문의 비어와 속어를 격식이 일치하는 비어나 속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유지”로 분류하고, 원문의 비어나 속어보다 어휘 격식이 높은 완곡어, 일상어, 격식어로 번역하거나 해당 어휘를 완전히 생략한 경우, “상승”으로 분류했으며, 원문의 어휘에 비해 번역문의 어휘 격식이 오히려 더 낮아진 경우에는 “하락”으로 분류하였다.

3.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서 금기 비속어의 어휘 격식이 어떤 양상

을 띠면서 변화하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영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의 코퍼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퍼스 구축에 사용된 자료는 소설과 DVD 영화 자막의 영한 번역으로, 각각 30편씩을 선정하였다. 소설은 한국어 번역본을 기준으로 출판연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DVD 영화는 개봉연도¹¹⁾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국에서 상영된 작품을 선정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언어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시기에 번역된 작품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일관된 특성을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소설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 네이버 검색 엔진을 통해 스티러, 폭력, 범죄, 살인, 십대 청소년, 선정적인 주제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 관련 작품들의 서지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와 같은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제공하는 서평을 읽고 해당 키워드에 부합하는 작품 총 30편¹²⁾을 선정하였다.

각 번역본의 50페이지¹³⁾ 내에서 금기 비속어가 포함된 대화체 문장(독백 포함)의 ST/TT 번역쌍을 추출하였다. 작품 전체가 아닌 50페이지에 한정하여 텍스트를 분석한 이유는 금기 비속어에 대한 번역자 1인의 번역 경향이 한 작품 내에서 일관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된 소설 영한 번역 코퍼스는 원문 기준 총 707 쌍¹⁴⁾이다.

11) 소설과 DVD 영화의 기준연도를 달리한 이유는 개봉 이후 DVD 출시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가능한 비슷한 시기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12) 분석 대상 소설 목록은 부록으로 별첨하기로 한다.

13) 소설의 구성 단계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 소설 전체 분량에서 각각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고, 인물의 특징이나 사건이 서서히 드러나는 전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50쪽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14) 금기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ST: "Sleeping. Finally. After marching all over the house like crazies, doing 'security checks' and complaining about every goddamn..."(*American Woman* by Susan Choi)와 TT: 잠들었어. 드디어. 마치 미친 것처럼 집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보안점검'이랍시고 하더니, 매사에 염병할 불평만 늘어놓고....."(『미국여자』 중에서, 유정화 옮김, 문학세계사의 경우, ST와 TT 모두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나의 금기 비속어 'goddamn'이 포함된 문장 하나만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번역 쌍을 이루는

본 연구의 또 다른 분석 대상은 DVD 영화 자막이다. DVD 영화 자막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개봉관 영화나 공중파 방송의 영화 자막은 자료의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적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¹⁵⁾.

DVD 영화 역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총 30편¹⁶⁾의 영화를 선별하였다. 분석 대상 DVD 영화의 총 러닝타임은 3,535분이며, 추출된 ST/TT 번역쌍은 총 1,547쌍¹⁷⁾이다. 이와 같은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ST와 TT 사이의 어휘 격식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변화 양상의 측면에서 두 번역 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것으로 카운트하였다. 한 문장에 여러 개의 금기 비속어가 등장할 경우에는 각각의 어휘를 하나의 번역 쌍으로 간주했다.

15) 실제로 자료 수집과정에서 공중파 영화의 자막을 수집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3개 방송사(KBS, MBC, SBS)에서 주말에 방송하는 영화녹화를 시도해보았으나, 2개월 간 총 2편의 영화를 녹화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외화의 방송 빈도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현실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대중들이 인터넷 데이터 공유사이트나 DVD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영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외화 시청률을 확보할 수 없으며, 또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한국영화의 방송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외화의 방송빈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월드컵 시작과 함께 공중파 TV 영화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어, 공중파 방송 영화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16) 분석 대상 영화목록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17) 분석 쌍은 소설 번역과 동일하게 금기 비속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하나의 번역 쌍으로 간주한다.

4. 분석사례 및 결과

4.1 분석 사례

4.1.1 상승

격식변화의 유형 ‘상승’은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어휘 격식이 더 높은 어휘로 번역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은 소설 「파이트 클럽」에서 추출된 예문이다.

[ST1] I get up to take a leak, and there against the sort of cave paintings of dirt in the toilet bowl is this. You have to wonder, what do sperm think?

This?

This is the vaginal vault?

What's happening here?

All night long, I dreamed *I was humping Marla Singer.*

[파이트 클럽]

[TT1] 소변을 보려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들어간 화장실. 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처럼 지저분한 변기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라곤 그것뿐. 정말 궁금해? 과연 정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뭐지?

이게 질의 천장인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젯밤 나는 **말라 싱어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꿔다.(최필원 2008, 70)

위 예문은 소설의 주인공 잭의 독백으로, 잭은 불면증 치료 모임에서 만난 가짜 환자 ‘말라’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잭은 꿈속에서 말라와 성관계를 갖게 되지만 상대가 말라이기 때문에 기분이 극도로 언짢다. 이 때문에 ST의 어휘 ‘hump(to have sexual intercourse)’는 말라와의 성관계에 대한 잭의 부정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절대 로맨틱한 상황이 아니므로 원저자는 다른 점잖은 표현을 선택하지 않고 비어인 ‘hump’를 선택했으나 TT에서는 완곡하게 표현된 관용어 ‘사랑을 나눴다’로 번역했다. 그 결과, ST

어휘(비어) 자체에 담긴 강한 불쾌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대상(말라)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했으며, 심지어 로맨틱한 분위기까지 연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어휘 격식이 높아질 경우, 감정의 강도를 보존할 수 없게 되고, 담화문의 문체 효과가 변하면서 텍스트 내적 일관성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성행위를 의미하는 어휘 ‘fuck’이 해당 영화의 자막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ST2] And I'm not you. I can't make it *on a couple of high-altitude fucks*, once or twice a year! [브로크백 마운틴]

[TT2] 일 년에 한두 번 **너만 바라보는 건** 너무 힘들다고

위의 예문은 잭(제이크 질렌할)과 에니스(히스 레저)가 마지막으로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기 직전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잭이 멕시코에 있는 남창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된 에니스가 극도의 분노심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한다. 이 과정에서 잭의 에니스에 대한 그리움과 성적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이 ‘on a couple of high-altitude fucks’이다.

영어 ‘fuck’이 문자 그대로 성행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화자의 분노나 강함 불쾌감을 함축하게 된다(McEnergy 2004: 260). 이런 의미에서 ST의 ‘high-altitude fucks’를 ‘너만 바라보다’로 번역한 것은 ‘fuck’이 담고 있는 강도 높은 성적 함축을 지나치게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눈을 피해서 산에서 만난다는 의미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번역으로 보기 어렵다.

4.1.2 유지

‘유지’는 원문과 비슷한 어휘 격식을 번역문에서도 사용하여, 원문의 어휘에 담긴 감정의 가치와 문맥적 효과를 비슷하게 보존한 경우를 말한다. 다음은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한 장면이다.

[ST3] Patrick: Lady, if you don't *shut your fucking mouth*,
I will kill you. [아메리칸 사이코]

[TT3] 패트릭: **아가리 안 닥치면** 죽여 버리겠어

살인을 저지른 패트릭이 중국인 부부가 하는 세탁소에 들어서 피 묻은 침대 시트의 세탁을 부탁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대사이다. 그러나 중국인 부부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트를 세탁해달라는 패트릭의 주문을 이해하지 못하자 패트릭은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TT를 살펴보면 ‘fucking’으로 인해 ‘mouth’를 ‘아가리’, ‘다물다(shut)’을 ‘닥치다’라는 타인을 비하하는 의미의 비어를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fucking’을 번역하는 방법은 감탄사 ‘빌어먹을’, ‘엠병’, ‘제기랄’, ‘젠장’ 등으로 번역하거나, 뒤에 오는 어휘를 격식이 낮은 표현으로 대체하여 번역한다. 이 경우 어휘의 격식을 보존하고 패트릭의 파괴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음 예문은 영화 「번애프터 리딩」의 한 장면으로 욕설을 통해 주인공 오지의 신경질적이고 괴팍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ST4] Ozzie: *Why the fuck* would they go to the Russians?
Why the fuck? [번애프터 리딩]

[TT4] 오지: 러시아 대사관엔 왜 갔지? 대체 왜, **엠병?**

‘엠병’은 ‘엠병을 앓다’라는 뜻의 ‘엠병하다’에서 온 말로 못마땅할 때 사용하는 욕이며, 엠병의 작은 말로 한국어에서는 비어로 분류되어 있다. ‘why the fuck’을 비어 ‘엠병’으로 번역하여 ST와 TT 간 어휘 격식을 일치시켰다. 주인공 오지가 의문문일 경우 대부분 ‘의문사 + the fuck’의 구조를 활용하는 특징적인 개인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 예문의 욕설은 그의 성마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언어적 장치인 셈이다. 번역문에서는 구어체의 특징인 반복 어구를 한번만 번역하였으며, ‘why the fuck’을 ‘엠병’으로 번역하여 화가 난 오지의 현재 감정 상태를 전달하고 있다.

4.1.3 하락

‘하락’은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어휘 격식이 오히려 더 낮아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문에 비해 화자의 감정이 보다 강렬해지고 더불어 담화문의 격식도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5] Mike: Abby, a ponytail implies that you are either operating heavy machinery or emptying the litter box. neither of those things *inspires an erection*.

Abby: Why is it my responsibility to inspire an erection? Isn't that his job? [어클리 트루스]

[TT5] 마이크: 요조숙녀처럼 질끈 묶은 머리는//

똥똥이 세우는데//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에비: 왜 내가 남자 발기까지 신경 써야 돼요?

위의 예문에서 마이크의 대사와 에비의 대사는 동일한 구(句) ‘inspire an erection’이 등장하지만, 마이크의 대사는 ‘똥똥이 세우는데’로 에비의 대사는 ‘발기까지’로 각각 달리 번역되어 있다. 마이크의 대사의 경우, ST의 어휘가 의학 용어로 된 격식어인 데 반해 TT 어휘는 ‘똥똥이 세우다’라는 한국어 속어로 번역하여 오히려 TT 어휘의 격식성이 더 낮아졌으며, 그 결과 문체 효과가 달라지고 진지한 대화의 분위기가 저속해졌다.

다음은 분석 대상 소설에서 추출한 예문으로 완곡한 어휘로 표현한 것을 번역문에서 비어로 번역하여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감정의 강도가 한층 더 강해진 경우이다.

[ST6] “*Sheesh*, and they called Cole crazy?” [리시 이야기]

[TT6] “**망할**, 거드 엘런 콜이 미치광이라고?”(김시현 2007, 142)

ST에서는 ‘shit’의 완곡한 형태인 ‘sheesh’를 TT에서는 ‘망할’이라는 비어로 번역하였다. 이 예문처럼 ST의 비어나 속어의 완곡어를 TT에서는 명시화해 번

역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어감이 나쁜 비속어의 경우, 자음 추가의 방식을 통해 어감을 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10 대들 사이에서는 ‘난장을 치다’라는 의미의 비어 ‘젠장’을 ‘된장’ 또는 ‘텐장’이라고 발음하여 원래 비어가 갖는 불쾌감을 완화시켜 사용한다. 대부분의 욕설이 화용적인 등가어로 번역되고 있음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이 예문에서도 자음이나 모음 등을 추가하여 ST의 완곡 표현을 보존하는 번역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은 소설과 자막 번역에서 금기 비속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격식 상승의 경우, 번역어 선택 시 최하위 격식의 어휘를 번역문에서 완곡어 이상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하여, 담화문의 분위기 즉, 문체효과가 원문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원문과 번역문 간의 괴리는 텍스트의 흐름을 끊고, 때로는 인물의 성격이 다르게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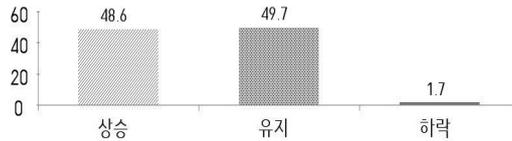
4.2 분석결과

소설 30편에서 수집된 총 707쌍과 DVD영화 30편에서 수집된 총 1,547쌍의 ST/TT 번역쌍에 어휘격식 모델을 적용하여 격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격식 변화의 유형은 상승, 유지, 하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작품별로 산출된 데이터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4.2.1 소설번역

소설 번역의 금기비속어 번역쌍 707쌍 중에서 ‘유지’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49.7%로 상승 48.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격식이 더 낮은 어휘로 번역된 하락의 유형은 1.7%로 전체 번역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림 2〉 소설의 금기 비속어 격식변화



금기 비속어의 세 가지 어휘 유형별 격식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성 관련 어휘(유형1)와 신체부위 및 배설(유형2)의 경우, 상승>유지>하락 순의 격식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비중 면에서, 유형2 어휘의 상승 비율은 유지에 비해 약 2배, 유형1의 경우 약 3배가량 높다. 다시 말해, 유형 1에서 상승의 격식 변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의 성문화가 은밀하고 노출을 꺼리는 경향(서울신문 2011)¹⁸⁾’이 강하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성 관련 금기 비속어가 언어금기로서 부과하는 제재를 강하게 인식하여 원문의 어휘 대부분(78.08%)을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다. 급속하게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에 대한 태도가 차츰 개방적으로 변모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한국어 화자들이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린다는 점에서 목표문화의 수용성이 번역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욕설(유형3)의 경우, 격식 변화의 비중이 유지>상승>하락으로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의 어휘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욕설의 특성은 화자의 감정을 짚은 어휘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어 욕설의 강도나 함축적 의미에 상관없이, 염병할, 제기랄, 젠장, 개새끼, 놈, 자식 등의 한국어 욕설로 번역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미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 같은 욕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형1이나 유형2의 어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덜 가하는 어휘이므로, 원문과 유사한 격식을 보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이상국 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노출을 꺼리는 성문화로 인해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물론 성폭력 등 사회문제까지 낳고 있다.(2011. 11월 19일자 서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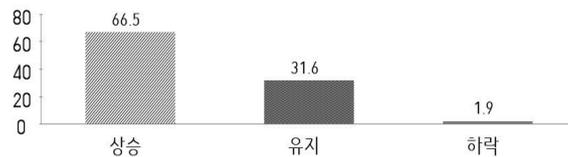
〈표2〉 어휘 유형별 어휘 격식변화 양상

어휘유형	격식변화가 높은 순
성 관련 어휘(유형1)	상승(78.08%) > 유지(19.42%) > 하락(2.5%)
신체 부위 및 배설(유형2)	상승(67.26%) > 유지(27.82%) > 하락(4.92%)
육설(유형3)	유지(60.51%) > 상승(39.33%) > 하락(0.15%)

4.2.2 자막번역

아래 <그림3>에서 보듯이, 자막 번역의 금기비속어 번역쌍 1,547쌍 중에서 ‘상승’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66.5%로 유지 31.6%보다 2배 이상 높다. 반면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격식이 더 낮은 어휘로 번역된 하락의 유형은 1.9%로 소설번역과 마찬가지로 전체 번역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림 3〉 자막의 금기 비속어 격식변화



어휘 유형별로 나타난 격식변화의 순서는 아래 <표3>과 같다. 자막 번역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어휘 격식의 변화 패턴을 보면 상승>유지>하락의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금기 비속어의 세 가지 유형을 번역할 시, 원문에 비해 어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성 관련 어휘(유형1)은 다른 두 가지 유형과 마찬가지로 상승>유지>하락의 변화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백분율 수치를 살펴보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성 관련 어휘는 거의 모두 상위 격식의 어휘로 번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 부위 및 배설(유형2) 어휘는 어휘 격식이 비슷한 어휘로 번역하

여 감정의 가치 및 효과를 보존하는 비중에 비해 상위 격식 어휘로 번역하여 부정적 가치를 누그러뜨리는 경우가 약 3배가량 높다. 반면, 욕설(유형3)의 경우, 상승의 비율이 유지 비율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유형1이나 유형2의 상승과 유지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유형1이나 유형2에 비해 유형3의 어휘를 번역할 때, 번역자에게 가해지는 자가검열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한국어 독자의 욕설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표 3〉 어휘 유형별 어휘 격식변화 양상

어휘유형	격식변화가 높은 순
성 관련 어휘(유형1)	상승(96.03%) > 유지(3.54%) > 하락(0.43%)
신체 부위 및 배설(유형2)	상승(76.69%) > 유지(20.34%) > 하락(2.97%)
욕설(유형3)	상승(56.82%) > 유지(41.45%) > 하락(1.73%)

4.3 두 번역 간 격식변화 양상의 차이

4.3.1 텍스트 전체에서 발견된 격식변화 양상의 차이

본 연구는 금기 비속어 어휘 격식 변화의 측면에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SPSS 1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에서 금기 비속어 전체의 어휘 격식 변화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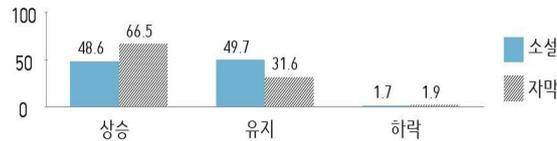
조사 대상의 어휘 격식성의 변화에 대한 값으로는 전체 어휘에서 격식성 구분항목(군) 상승/유지/하락 건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격식에 대한 항목별 특성은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이용하여 표시하였으며,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 이표본 T 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14>와 <그림4>와 같다.

〈표 4〉 소설과 자막의 격식 변화 차이

격식 변화	소설		자막		p valu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승	48.6	24.5	66.5	7.5	0.001
유지	49.7	24.2	31.6	7.4	0.000
하락	1.7	3.7	1.9	3.8	0.812

* P 값 < 0.05가 성립해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

〈그림 4〉 소설과 자막의 격식 변화 차이



위의 표에서 보듯이, 상위 격식의 어휘로 번역한 ‘상승’ 유형의 비율은 자막 번역(66.5%)이 소설 번역(48.6%)보다 높은 반면, ST와 TT 간 어휘 격식에 차이가 없는 ‘유지’ 비율은 소설 번역(49.7%)이 자막 번역(31.6%)보다 높다. 한편, ‘하락’ 비율은 자막 번역(1.9%)이 소설 번역(1.7%)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다. ‘상승’ 비율과 ‘유지’ 비율은 P값이 모두 0.05보다 작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자막 번역은 ST어휘의 감정적 강도나 기능을 누그러뜨려서 번역하는 경향이 소설 번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설 번역은 ST 어휘의 강도나 문체 효과를 비슷한 수준으로 보존하는 경향이 자막 번역에 비해서 두드러진다. ST에 비해 오히려 어휘 격식이 더 낮아져 감정의 강도가 더 강해진 ‘하락’의 번역방법은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 모두에서 활용 빈도가 지극히 낮았다.

어휘 격식의 관점에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이 서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두 번역이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고 번역 모드의 변화 여부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어가 구어에 비해 격식이 높은 언어를 사용한다(Gambier 1994; Kovacic 1996; 노대규 1996; 김혜영 외 2010)는 점에서 소설 원문에서의 저속한 금기 비속어의 사용빈도나 강도가 구어로 이루어

진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소설 번역은 원저자의 표현방식을 존중하고 우선시하기 때문에 번역자의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적으며, 문어에서 문어로 옮기는 번역이기 때문에 원문 자체에 비교적 강도가 낮은 금기 비속어가 사용되어 이를 보존하는 데 대한 부담이 번역자에게 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3.2 두 번역 간 어휘 유형별 격식 변화의 차이

유형별 어휘의 격식 변화에 대한 두 번역 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형3 어휘에 한해서 두 번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 <표4>에서 보듯이, 유형1과 유형2 어휘의 경우, 소설 번역이나 자막 번역 모두 ST에 비해 어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하여 감정의 강도나 효과를 누그러뜨리는 번역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면, 유형3 어휘에 한해서는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자막 번역에서는 유형3 어휘는 ST보다 격식이 높고 강도는 약화된 어휘로 번역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지만, 소설 번역의 경우 ST와 유사한 격식과 감정의 강도를 갖는 어휘로 번역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설 번역에서는 욕설을 욕설로 번역하는 비율이 높지만, 자막 번역에서는 욕설을 완화하여 번역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유형3 어휘의 격식변화 패턴

어휘 유형	소설의 변화 패턴	자막의 변화 패턴
유형 1	상승 > 유지 > 하락	상승 > 유지 > 하락
유형 2	상승 > 유지 > 하락	상승 > 유지 > 하락
유형 3	유지 > 상승 > 하락	상승 > 유지 > 하락

자막 번역의 경우, 유형3(욕설) 어휘는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하는 경우가 감정의 강도나 문체 효과를 누그러뜨리는 경향이 격식을 보존하는 경향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막 번역이 구어를 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격식이 높은 언어를 선호하는 문어규범을 준수하게 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구어적 특징인 감탄사로 사용된 욕설 등을 번역하지 않고 생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유형1이나 유형2 어휘는 두 번역 모두에서 어휘 격식이 높아지면서 불쾌함 등 부정적 감정의 강도는 줄어드는 ‘상승’ 유형의 번역 비율이 상당히 높은 어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의 어휘의 경우, 번역자가 ST와 동일한 격식으로 번역하여 감정 환기의 정도나 분위기를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대한 심리적 제약을 강하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원문과 번역문 간 어휘 격식 변화의 측면에서 소설 번역은 ST와 동일한 격식의 어휘로 번역하는 ‘유지’ 유형이, 자막 번역은 상위 격식의 어휘로 번역하는 ‘상승’ 유형이 가장 두드러진 격식 변화의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어휘에 따른 두 번역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형1(성 관련 어휘)이나 유형2(신체부위 및 배설 관련 어휘)는 두 번역 모두에서 ST에 비해 어휘 격식이 높고 감정적 강도가 크게 완화된 어휘로 번역된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유형3(욕설)의 경우, 소설 번역에서는 ST와 어휘 격식, 감정적 강도, 기능적 효과 등이 유사한 어휘로 번역한 ‘유지’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으나, 자막 번역의 경우에는 유형1(성 관련 어휘)이나 유형2(신체부위 및 배설 관련 어휘)에 비해 비율은 다소 낮으나 여전히 어휘 격식이 높고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크게 누그러진 어휘로 번역하는 ‘상승’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격식변화 양상의 두 번역간 차이는 각각의 번역이 갖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소설 번역의 경우, 원문에 대해 충실성에 좀더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상승보다는 유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막 번역의 경우, 독자의 수용성이나 목표 문화의 규범을 따르는데 대한 상대적 비중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상승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금기 비속어의 경우, 인물의 특성이나 작가의 문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으며, 해당 어휘 자체가 어휘에 담긴 감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번역의 적절성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목표문화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어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할 경우, 문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례 제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과 DVD 자막 영화에서 수집된 번역쌍을 분석해본 결과, ST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위 격식의 어휘로 번역하거나 생략하여 원문 어휘의 강도와 문체 효과가 충실하게 보존되지 않거나 원문과 상반된 문체 효과가 발생한 비율이 소설 번역은 96.3%였고, 자막 번역은 95.3%나 되었다¹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 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금기 비속어를 원문의 어휘 격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위 격식의 어휘로 번역할 경우, 기대했던 문체적 효과를 재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효과재현 실패가 텍스트 내적 손실로 이어지고 번역의 수용자가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 인물의 성격, 발화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문화 및 언어 간 차이로 말미암아 원문의 금기 비속어가 지닌 감정의 강도나 문체 효과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번역어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번역자가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창의적인 방법, 예를 들어, 영어의 비어를 한국어의 욕설과 속어를 조합하여 번역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원문과 번역문 간에 커다란 문체적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동연 (2009) 『국어 비속어 사전』, 서울: 프리미엄북스.
 김태엽 (2007) 『한국어 대우법』, 서울: 역락.

19) 이같은 결과는 상승 유형 중 완곡어 이상, 일상어나 격식어로 번역된 사례만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즉, 어휘가 갖는 강도나 부정적 의미가 중립화되어 원문의 의도된 문체(분위기)를 전혀 살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김혜영 외 (2010) 「비교 코퍼스에 기반한 불한 번역 문학의 격식성 연구: 구어체와 문어체 사용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1(3): 93-120.
-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서울: 국학자료원.
- 유송영 (1993) 「국어청자 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2)」, 『주시경학보』 12.
- . (1994) 「국어청자 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 『국어학』 24.
- 이정복 (2008) 『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서울: 소통.
- 최석재 (2007) 「현대국어 대우법의 화계 구분에 대한 고찰: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서울 지역 구어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7: 397-432.
- 클레어, 엘리자베스 (1995) 『Sexy English』, 민현주 옮김. 서울: 제삼기획.
- 한길 (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 연구』, 서울: 역락.
- 한미선 (2011) 「비속어의 영한번역 사례연구: 격식성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3): 281-303.
- . (2012) 『금기비속어의 영한 번역연구: 격식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Allan K. & Burridge, K. (2006) *Forbidden Words: Taboo and the Censoring of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P.
- Baker, M.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 (1994) *In Other Words: A Course 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Cheshire, J. & Bell, A. (2003) 'Register and Styl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 3.*, Edited by Frawley, W. Oxford; New York: Oxford UP.
- Dewaele, J. M. (2004a.) 'The emotional force of swearwords and taboo words in the speech of multilingual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5(2): 204-22.
- Gambier, Y. (1994) 'Subtitling: A Type of transfer' In *Transvasses Culturelles: Literature, Cine, Traduccion*, Edited by Eguiluz et al. Victoria: Facultad de Filologia.
- Joos, M. (1965) *The Five Clocks*. New York: Harcourt, Brace.
- Harris, C. L, Aycicegi, A. and Gleason, J. B. (2003) 'Taboo Words and

- Repimands Elicit Greater Automatic Reactivity in a First Language than in a Second Language', *Applied Psycholinguistics*, 24: 561-79.
- Heylighen & Dewaele (1999) 'Formality of Language: Definition, Measurement and Behavioral Determinants', Internal Report, Center "Leo Apostel", Brussels: Free University of Brussels, 1-38.
- Javier, R. & L. Marcos (1989) 'The role of stress on the language-independence and code-switching phenomena',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8(5): 449-72.
- Janschewitz, K. (2008) 'Taboo, emotionally valenced, and emotionally neutral word norm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4): 1065-74.
- Jay, T. (1992) *Cursing in America*. Philadelphia/Amsterdam: John Benjamins.
- Jay, T & Janschewitz, K. (2008) 'The pragmatics of swearing',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4: 267-88.
- Kovacic I. (1996) 'Reinforcing or changing norms in subtitling' In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3: New Horizon*, Edited by Dollerup, C. and Appel, V.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McEnery, A. and Zhonghua, X. (2004) 'Swearing in modern British English: The Case of Fuck in the BNC', *Language and Literature*, 13(3): 235-68.
- Newmark, P. (1981)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and New York: Pergamon.
- . (1988)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Savova, L. (2005) 'Register' In *New Encyclopedia of Linguistics 2*, Edited by Philipp Strazny. New York: Taylor & Francis.
- Stevens, P. (1966) *Papers in Languages & Language Teaching*. London: Oxford UP.
- Trudgill, P. (1983) *Sociolinguistic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Societ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부록 1] 분석 대상 소설 목록

번호	서명	원저자	번역자	출판 년도	출판사
1	블랙달리아	제임스 엘로이	이종인	2006	황금가지
2	사이더 하우스	존 어빙	민승남	2008	문학동네
3	미스틱 리버	데니스 루헤인	최필원	2003	황금가지
4	생쥐와 인간	존 스타인벡	정영목	2009	비룡소
5	아메리칸 사이코	브렛 이스턴 엘리스	이옥진	2009	황금가지
6	살인자들의 섬	데니스 루헤인	김승욱	2004	황금가지
7	슬립독 밀리어네어	비카스 스와루프	강주현	2009	문학동네
8	빌리지스	존 업다이크	변종민	2009	영림 카디널
9	다빈치코드	댄 브라운	양선아	2005	대교 베텔스만
10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로렌 와이스버거	서남희	2006	문학동네
11	미국여자	수잔 최	유정화	2005	문학세계사
12	서머시스터즈	주디 블룸	신동욱	2000	인복스
13	리틀비	크리스 클리브	오수원	2009	에이지
14	블랙에코	마이클 코넬리	김승욱	2010	렌덤하우스
15	리시 이야기	스티븐 킹	김시현	2007	황금가지
16	브리짓존스의 일기	헬렌 필딩	임지현	2009	문학사상사
17	섹스 앤더 시티	캔디스 부쉬넬	박미영	2007	아침나라
18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리저	공경희	2002	민음사
19	가장 푸른눈	토니 모리슨	신진법	2003	들녘
20	파이트클럽	척 필라닉	최필원	2003	렌덤 하우스
21	블랙호크다운	마크 보우든	황보종우	2002	청아
22	줄어드는 남자	리처드	조영학	2007	황금가지

		메디슨			
23	8백만 가지 죽는 법	로렌스 블록	김미옥	2005	황금가지
24	이웃집 소녀	잭 케침	진행선	2009	크롭씨클
25	난초도둑	수잔 올린	김영신/ 이소영	2003	현대문학
26	소설가의 죽음	퍼트리샤 쿤웰	홍성영	2005	랜덤 하우스
27	코끼리에게 물을	새러 그루언	김정아	2007	두드림
28	진짜 좋은 게 뭐지	닉 혼비	김선형	2005	문학사상
29	제스퍼존스가 문제다	크레이그 혼비	문세원	2010	양철북
30	존 레넌을 찾아서	토니 파슨스	이은정	2007	시공사

[부록 2] 분석 대상 DVD 영화 목록

번호	드 라 마	개봉 년도	관람 등급
1	클로저	2005	청불/R
2	브로크백 마운틴	2006	15세/R
3	바벨	2006	청불/R
4	어댑테이션	2002	청불/R
5	S 러버	2009	청불/R
6	썬버스	2006	청불/R
7	나비효과	2004	청불/R
8	아메리칸 뷰티	1999	청불/R
9	비포 선셋	2004	15세/R
10	8마일	2002	청불/R
11	브리짓존스의 일기	2004	청불/R
12	섹스 앤더 시티	2008	청불/R

13	아메리칸 파이 3	2003	청불/R
14	어글리트루스	2009	청불/R
15	번애프터리딩	2008	청불/R
16	40살까지 못해 본 남자	2005	청불/R
17	애널라이즈 디스	1999	청불/R
18	첫 키스만 50번째	2004	15세/R
19	피너츠 송	2002	청불/R
20	너스 베티	2000	15세/R
21	파이트 클럽	1999	청불/R
22	블랙달리아	2006	청불/R
23	미스틱 리버	2003	15세/R
24	디파티드	2006	15세/R
25	굿 셰퍼드	2006	청불/R
26	아이덴티티	2003	15세/R
27	모범시민	2009	15세/R
28	알파독	2006	청불/R
29	아메리칸 사이코	2000	청불/R
30	블랙호크 다운	2001	15세/R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Tabooed Slang and Vulgar Expressions with a Focus on Shifts in
Lexical Formality: Based on Translated Novels and Films**

Han, Mi S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ranslation of tabooed slang and vulgar expressions in novels and DVD subtitles in terms of shifts in lexical formality, and identify both 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factors affecting such formality shifts. Tabooed slang and vulgarism, the focus of this study, refer to slang and vulgar expressions universally regarded as taboo. The reas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formality shifts in tabooed slang and vulgar words lies in the fact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 between formality and emotional tone of words or expressions (Newmark 1988; 김동언 2009). This means that formality shifts are more likely to lead to the failure in preserving the emotional intensity of such expressions in translation. Therefore, in the translation of these expressions, the emotional force contained in them should be reproduced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original so as to achieve the intended stylistic effect and pragmatic funct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1) Employing objective and empirical data,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tabooed words are toned down in emotional force or omitted completely regardless of their textural functions to meet the expected standards of readers in the target culture; 2) It suggests that tabooed slang and vulgarism in the source language be translated into words with the same degree of formality in the target language as a desirable way of translating such expressions; 3) This

study aims to draw greater attention to slang and vulgar expressions, which have been regarded as a minor language variety and thus neglected by the academic community.

▶ Key Words: tabooed slang and vulgarism, emotional tone, formality, formality shift, stylistic effects

한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번역과 겸임교수

ericka031@ewh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문체), 영상번역, 번역평가,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